

문체부, 최순실·차은택 의혹사업 오명 씻을 수 있을까?

차은택 광고 감독과 관련 문제 사업 점검 위한 태스크포스팀 가동... 늘품제조·K컬처 밸리 등

최순실·차은택 부(部)로 불릴 정도로 오명을 뒤집어 쓴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 문체부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과 그의 측근인 차은택 광고 감독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문제 사업을 점검·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1일 가동시켰다.

점검과 검증이 끝날 때까지 운영하는 이 팀은 1차관을 팀장으로 한다. 문화예술분과, 콘텐츠분과, 체육분과, 인사·감사팀 등 총 4개 분과에 분과장을 두고 창조행정담당관을 총괄 간사인 기획조정실장을 맡는다.

문제관악기준 설정, 정밀한 조사 과정·국장·실장의 종합적인 점검 등을 운영 원칙으로 삼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재점검·검증할 사업은 무엇?... 문화창조융합벨트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 감독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부 프로젝트는 20여개다.

그가 가장 크게 입김을 불어넣은 것으로 알려진 건 '문화창조융합벨트'다. 내년 예산은 1278억원으로 올해 편성된 900억원보다 374억원이 늘었다. 증액률은 무려 41.9%다.

특히 이곳에 입주한 88개 기업 중 절반 관련이 영상 공연 플랫폼 관련 기업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차 감독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이 벨트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했다. 전날 사표를 낸 송성각 전 원장이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이다. 송 전 원장은 차 감독의 인맥이다.

문체부는 문화융성이 국정 기조인 만큼 큰 틀에서는 끌고 나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 예산은 차 감독이 관여한 것이라고 규정,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문체부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늘품제조도 차 감독 작품?

표절 논란을 빚었던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역시 차 광고감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차 감독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플레이

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와 관련 회사들에게 입금이 몰렸다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늘품 제조 역시 차 감독이 주도했다. 이로 인해 한국스포츠개발원이 2년 간 약 2억원을 들여 준비한 '코리아 체조'는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홍보 등으로 3억여원이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늘품 제조는 차 감독의 유명 회사로 제작비가 들어간 의심도 나오고 있다.

문체부는 늘품 제조 등 이미 예산이 투입, 종료된 사업은 조치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책임자를 찾아 문책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애꿎은 불평은 늘품제조를 만든 트레이너 정아를 시에게 뒤었다. 그녀는 차 감독을 알지 못한다며 등작 등을 납품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차은택, K-컬처 밸리에도 개입?

지난해 12월 CJ E&M 컨소시엄(케이밸리)이 사업권을 따낸 K-컬처밸리 역시 차 감독이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기 고양에 조성되는 이 사업은 2017년까지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공식이 열린 올해 5월 직접 고양시를 방문했다. 이 부

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최순실·차은택, 인맥 정리 되나?

송 전 장관진 원장과 감독 차관 등 최순실·차은택과 관련된 인사들이 사퇴하면서 문체부 내 이들의 인맥이 정리되는 모양새지만 좀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특히 사퇴한 이후에도 법적인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덕 전 장관은 차 감독의 대학원 스승이었다. 외삼촌인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발탁되기도 했다.

차 감독은 일부에 문체부 장관이 되고 싶어했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김 전 장관을 징검다리 삼으려고 했다는 증언도 일부 언론을 통해 나왔다. 그만큼 직간접적으로 그와 관련된 인사가 얽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 논란 사업에 대해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앞서 지시했다. 외부개입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논란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법령위반 및 사익 도모 여부 등을 엄정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1

'사람과 사람 사이' 호쾌한 소통 나뉘

서학아트스페이스 내일 '갤러리 인문학' 열어

서학아트스페이스(대표 김성균)는 3일 오후 7시~9시 '갤러리 인문학'을 연다. 이 강의는 전북 문화관광재단의 문화예술 클래스 사업의 일환으로 도민들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열린다.

이날 강연에는 안은영(소설가·전 신문기자) 작가를 초청해 '사람과 사람 사이'이란 주제로 호쾌한 소통을 나눈다. 그녀는 복잡다단한 인생사를 실타래 풀 듯 풀어내는 기묘한 재주로 독자들의 마음을 활짝한다.

안 작가는 1971년 전주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후 18년 동안 월간지와 일간지에서 기자로 일했다.

작가는 여성들의 사랑·연애·직장생활·인간관계에 대한 상급별별한 조언서 '여자생활백서'로 200여성들의 멘토 자리 잡았고 남자와 연애에 관한 지침서 '여자생활백서 시즌2'로 핏갈라는 사랑을 명쾌하게 풀어내 40만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또 흔들리는 청춘에 보내는 소박한 위로의 편지를 담은 '여자공감'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이 세권의 책은 중국과 대만에서도 출간되었다.

이외에도 같은 이름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두 여성의 삶을 이야기한 장편소설 '이지연과 이지연'으로 소설가로서의 입지를 다졌으며, KBS라디오 유열의 음악앨범에서 '리얼 터치, 사람과 사람 사이' 코너를 맡아 방송활동을 펴기도 했다. 한편 서학아트스페이스의 갤러리 인문학은 오는 10일 최라영(전시기획,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겸임교수) '영화 속의 영화 이야기' 강연으로 막바지에 이른다. /정해은 기자



가슴속에 응크리던 감정 밖으로 드러내다

전북도립미술관, 이가립 개인전

이가립 작가는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인간관계의 이질감과 불편한 속내를 감추는 것은 도리어 관계의 위험인자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가슴 한구석에 응집되었던 감정을 시원히 밖으로 드러내 보인다.

작품 속 파예로는 현대인들의 솔직한 감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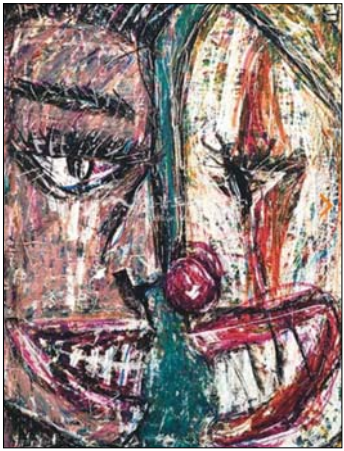
이같은 표현은 즉흥적이지만 치밀하고 본능적이다. 날카로운 직선을 수차례 덧칠하는 과정은 상상적 욕망의 표출로 이는 무겁고 폭력적인 현실의 냉혹함을 보여준다.

작품에서는 복잡한 관계의 파편이 거친 선이 되고 그것들이 모여 결국 내면의 자화상으로 화면 위에 나타난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밖으로는 쉽게 드러낼 수 없었던 우리의 감정을 마주하며, 미소 뒤에 감춰져있던 우리들의 자화상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한다.

이가립 작가는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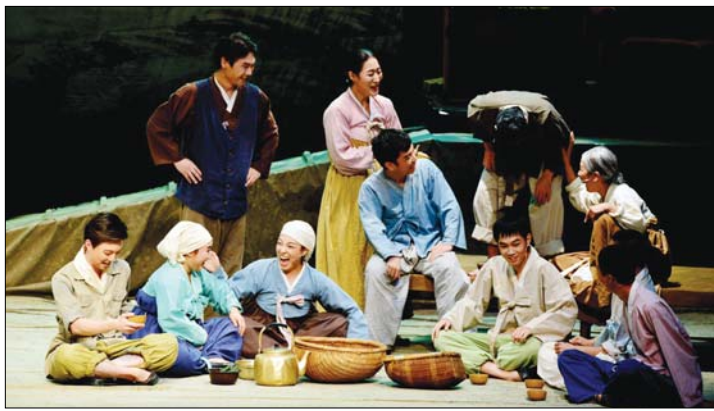
쉽게 말하자면...전(한국소리문화전당), 더젊은 전(우진문화공간), CART Salon전(우진문화공간), 도립미술관 기획전 '얼



이가립 작가의 상징적인 현대인

굴, 사유의 형상전(전북도청 기획전시실), 아시아현대미술전2016-아시아 청년36(전북도립미술관)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단체 기획 초대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6 전북도립미술관 창작 스튜디오 레지던시에 참여하였으며, 사)한국미술협회 전주지부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이가립 작가의 3번째 개인전은 2~7일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정해은기자



군산예술의 전당, 예술인 공간으로 자리매김

군산예술의전당이 군산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예술감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술의전당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재 군산예술인의 공연·전시 창작활동이 지난해 대비 30% 이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로 접어들며 더욱 왕성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시는 예총산하 국악·무용·미술·사진·연극 등 9개지부 70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이 외에도 수십 개의 민간예술단체(동호회 포함)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예술단체들의 활동은 2013년 5월 군산예술의전당이 개관하면서 더욱 왕성

하게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술인 활동의 성장에 군산예술의전당의 가동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문화회관의 공연장 평균 가동률은 55.4%에 불과하지만 군산예술의전당 2014년 64.4%의 가동률을 보였다. 2015년에는 메르스의 여파로 61.2%로 감소했으나, 2016년에는 70%이상의 가동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시실 또한 2015년 80%의 가동률을 보일만큼 지역예술인들의 참여도는 높았으며, 올해에도 12월까지 전시실 대관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다. /군산=문정근 기자

전라북도여약사회, 멘토 장학생에 장학금 전달

전라북도여약사회(회장 소현숙)는 지난 30일 멘토 장학생을 선발해 전북 여약사 회원들과 함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19명의 학생들에게 570만원이 전달됐으며 멘토 장학금은 여약사 회원들이 장학금을 출연해 일대일 멘토로 선발된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소현숙 회장은 "우리가 전달한 장학금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학업에 더욱 정진하면서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체력단련에도 힘써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이 돼 미래의 멘토(지도자·스승)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아쿠타가와상 받은 '편의점 알바생' 출간

2016년 여름 특이하게 일본 도쿄의 한 편의점에서 소설가의 사인회가 열렸다. 사인회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편의점에서 18개월 알바를 하고 있는 여성 작가 무라타 시아카. 그는 편의점에서 알바한 경험을 녹여낸 자전적 소설 '편의점 알바생'으로 올해 아쿠타가와상을 받았다. 아쿠타가와상은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순수문학상이다. 주인공 '후루쿠라 게이코' 역시 이런 세상의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광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다양한 일을 겪으며 본인보다 다소 이상한 아이란 걸 깨달은 게이코는 대학 1학년 때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며 처음으로 정상적인 세계의 일부가 되는 순간을 맞이한다. 그런 그녀 앞에 '시라하리'는 남자가 나타나면서 가지런히 진행된 편의점 매대와 같은 그녀의 일상이 어질러지기 시작한다. 김석희 옮김, 192쪽, 1만2000원, 살림 /뉴스1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11월 2일>



▷쥐띠

46년생: 겉으로는 화려한 듯 하나 내면은 무실하다.
60년생: 인덕은 바리치 마라. 혼자서 힘들지만 이겨낼 것이다.
72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무리한 활동을 삼가라.
84년생: 재물이 길성이 비추는 운이다. 한민족의 결과.



▷용띠

52년생: 능력 발휘가 잘 되는 운이다. 작은 것을 행하라.
64년생: 금전적으로 유리한 운이 들어왔으니 활발하게 움직여라.
76년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던 운기를 내보라.
88년생: 처음에는 경쟁자였던 사람이 나중에는 좋은 관계



▷원숭이띠

59년생: 출생하면 유익하다. 길성이 따르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69년생: 두 마리의 용이 하나의 여의주를 가지고 다투는 격.
80년생: 동주는 어둠과 내가 향하는 방향은 밝다.
92년생: 무리한 활동으로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



▷소띠

49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생기는 운. 욕심을 버리는 것이 상책.
61년생: 혼자서는 어려우나 몇 사람의 덕을 구하라.
73년생: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편안할 것이다.
85년생: 남자는 여성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때.



▷범띠

53년생: 상세한 일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운.
65년생: 작은 재물은 쉽게 들어오나 큰 재물은 얻기 힘들다.
77년생: 무심코 행동한 일에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니 주의.
89년생: 손재주와 실물수가 생기는 운이다. 세심하게 관리하라.



▷말띠

57년생: 구설수, 시비가 따르는 운이다. 매사 진지하게 임하라.
69년생: 자신도 모르게 주장이 강해지는 운이다.
81년생: 어려움이 있으면 원시사람의 도움을 받으라.
93년생: 좋지 않은 사람과 인연이 생겨 불행 일이 있다.



▷호랑이띠

50년생: 근심하면서 부진한 정성을 다해 해쳐나간다.
6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74년생: 지나친 추진은 실패를 부르는 법. 길속에 흥.
86년생: 혼자서는 어려우나 함께하면 이를 수 있는 운이다.



▷말띠

54년생: 깊은 산속에 호랑이가 숨어있는 격, 때와 시기를 기다려라.
66년생: 소리는 크나 형체가 없으니 요란하기만 하고 실속이 없다.
78년생: 동기인과 불화가 예상되니 양보가 미덕이다.
90년생: 서로 통하지 않는다. 같은 옷이니 속으로는 서로 다른 마음.



▷개띠

48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지지부진해지니 무리한 추진은 삼가라.
60년생: 내부적으로 근심 걱정할 일이 생기니 미리 예방하라.
72년생: 호흡을 맞춰 같이할 믿을 만한 사람은 구하기 어렵다.
84년생: 권위는 불리하다. 성실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최상의 길.



▷토끼띠

51년생: 문서에 길성이 들었으니 문서를 주고 받는 일에는 좋은 운.
63년생: 정신이 흠미하니 속백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75년생: 이성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87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다. 말과 행동에 주의하라.



▷양띠

55년생: 여인으로 인해 구설수가 발생하니 말을 줄이고 경계하라.
67년생: 하늘과 땅이 만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화합하기 어렵다.
79년생: 급하게 움직이면 얻지 못하니 경거망동을 삼가라.
91년생: 가까운 사람에게 뜻밖의 해답을 구할 수 있다.



▷돼지띠

47년생: 의존하고 움직이면 하고자 하는 일이 반항할 것이다.
59년생: 다른 사람의 조언이해를 조심하라. 시기심이 포함되어 있다.
71년생: 귀인의 혜택으로 성공하니 말을 주고받음에 있다.
83년생: 공동으로 움직이면 어려운 일이 이를 수 있는 운이다.